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

90주년 행사 北대표단 초청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해 교육감 서신 및 초청 제안서 전달

북미 협상 난항 등으로 정부 차원의 교류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11월 3일 90주년을 맞는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 성사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대표단 초청에 관한 교육감 서신과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이날 오후 북측사무소에서 공식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개소하여 남북 간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기관 및 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제안서를 선별하여 북측과 협의·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안서에는 11월 3일 전후 3박 4일간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 광주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행사 참석, 평화통일수업 및 역사유적지(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참관, 남북 대표단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북한 대남교류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에도 직접 이메일을 통해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대표단 초청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북한 대표단과 항일학생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기념한다면 민족동질성과 평화통일 의지는 한층 고양될 것이다”며,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정체 국면일지라도 민간 및 지자체에서는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자는 ‘4.27판문점선언’을 명분으로 작년년부터 북한과 다섯 차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학생독립운동 관련 교류를 제안한 바 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소프트웨어 활용의 장을 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1~12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SW창의융합 동아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해커톤 동아리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페스티벌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렸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사를 일컫는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는 흔히 ‘난이도 높은 프로그래밍’이란 뜻으로 쓰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의 SW 교육

을 선도하는 문태고, 광양제철고, 목포제일고, 중마고, 순천연향중, 순천금당중 등 6개 학교에서 9개팀이 참가했다. 문태고 박호림, 삼호중 주현웅, 순천금당중 양석재 교사는 퍼실레이터로 활동했다.

전남의 미래교육-청의적 사고! SW를 활용한 명확한 표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전남 교육 가족과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다른 SW 경진대회나 프로그램과 달리 창의적 사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비판적, 융합적,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SW를 활용해 문제 해결방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표현력에

초점을 뒀다.

페스티벌에서는 자동으로 무게를 계산해 효율적 엘리베이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엘리트 베이트, 시험기간 교무실 시험문제유출방지 및 불편함 해소를 위한 교무실 출입기, 노약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Gas leakage solution,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포함된 스마트 카트, 지동 무게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도마 등 실제 시제품제작과 상용화가 기대되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현장을 방문한 장석웅 교육감은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SW교육의 최종적인 형태가 바로 해커톤 대회인 것 같다.”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중인 SW교육을 기반으로 한 컴퓨팅 사고력과 더불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런히 미래인재교장은 “SW 사고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이고, 앞으로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SW적 사고력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해커톤 대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 삼호중앙초, ‘사랑이 주렁주렁’ 키워 따기 체험

순천 내몰사랑키위농장과 결연 키워나무 분양



삼호중앙초등학교가 지난 12일 특별한 문화체험 ‘사랑이 주렁주렁’을 진행했다.

‘사랑이 주렁주렁’ 체험은 단순히 일회성 체험이 아니다. 삼호중앙초가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으로 매년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순천에 있는 내몰사랑키위농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키위나무를 분양 받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체험에서는 80여 명의 학

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해 300kg의 키위를 수확했다.

수확한 키위는 먼저 참여한 학생들 가정에 보내졌고 75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점심시간 후식 과일로 섭취했다.

특히, 교육복지 연계기관으로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관(20여곳)에 학생회와 참여 학생 대표들이 직접 방문해 감사의 의미로 전달할 예정이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키위는 딸기처럼 생긴 식물에서 열리는 줄 알았다”며 “주렁주렁 열린 키위 열매를 보고 깜짝 놀랐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키위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사랑이고 나눔이라는 소중한 의미의 결실이었다.

진도교육지원청,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1일부터 4주에 걸쳐 학부모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과정은 진도지역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및 학부모, 지역민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9~10월 중 토요일 4회에 걸쳐 총 24시간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4년제 강사 양성과정(2016 학교폭력예방교육, 2017 인성교육, 2018 감정코칭 및 분노조절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민을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획하였다.

이 연수는 사례를 통한 유형별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12일 교육에 참석한 자율방범진도연합회원은 “4년제 학부모와 지역민의 강사양성과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이를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청에 감사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배운 만큼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사 활동이,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광교육지원청, 찾아가는 경청올레 운영



영광교육지원청은 14일 백수중학교에서학교와 마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

가는 경청올레’를 운영하였다.

이번 경청올레에서는 최근 학생수 감소로 학교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수중학교와 백수서초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이 참여하여 공동의 현안문제 및 초·

생 확보로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균형 및 읍 등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의 현안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읍·면과 협력을 통하여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민들은 마을학교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고, 찾아가는 학교를 통해 마을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